

4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 그 배후와 회로

임성모



■ (위) 1940년대 만주국 지도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있는 인양자들, 중국잔류 고아들의 후생성 앞 시위, 기요오카 다카유키의 『아카시아의 다렌』 표지



1. 머리말

2009년 5월 ‘만주의 현관’ 다롄(大連)의 거리는 일본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제20회 ‘다롄 아카시아 축제’가 열렸던 것이다. 1989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1992년부터 중국의 국가관광국에 의해 국가급 관광 축제 행사로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 2009년 축제는 5월 25일부터 7일간 다롄 노동공원 등지에서 열렸는데, 다롄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다롄 관광국이 주관했다.¹⁾ 중국 지방정부와 일본 관광업체는 ‘중일 우호’를 내세웠지만, 다롄에 대한 일본인의 ‘향수’를 이용하여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상품화하는 데 손을 맞잡았던 것이다.

한편 1979년 다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타큐슈(北九州)시는 3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5월에 ‘아카시아의 거리 다롄 100년’ 전시회, 9월에는 ‘만철(滿鐵) 연선(沿線)을 방문하는 100년의 여행’ 전시회를 연속 개최했다. 9월의 전시 내용을 보면, 제1부가 ‘아카시아의 다롄, 대륙의 현관’, 제2부가 ‘특급 아시아호와 만철’, 제3부가 ‘만철 연선을 방문하는 100년의 여행’, 제4부가 ‘우호 사업’으로 구

* **자은이 | 임성모**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에서 일본근현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만주국 등 일본의 제국지배구조, 전시기 ‘협동체론’, 마이너리티와 인구이동, 동아시아 개념사 등이다. 저서로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역사비평사, 2004),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제이앤씨, 2006),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소명출판, 200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변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2000), 『전장의 기억』(이산, 2002),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산치럼, 2006), 『역사인식논쟁』(동북아역사재단, 2009) 등이 있다.

1) <http://jp.runsky.com/neirong.asp?newsid=650>

성되어 있었다. 5월의 다롄 전시회를 참관한 어떤 관람객은 홈페이지에 “옛 만주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로 타임슬립”했다는 방문기를 남기기도 했다.²⁾

다롄 관광 등으로 상징되는 만주의 기억은 이처럼 중일 양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들을 통해 대중화되어 있다. 오늘날 그 기억의 요체는 관람객의 방문기가 웅변하듯이 결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식민지 시절의 회상과 향수이다. 물론 타이완이나 한국 등 일본의 구식민지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의 향수 어린 기억은 마찬가지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만주 기억은 다른 식민지들의 경우와 달리 현대 일본 사회의 식민지 기억을 대표하는 전형성을 갖는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패전 당시에 만주국과 관동주(關東州)를 포함한 만주 지역의 일본인 수는 약 200만으로서 민간인이 150만, 군인(관동군, 關東軍)이 50만이었다. 이 숫자는 당시 재외 일본인 총수(660만)의 30%에 육박하는 숫자이며, 민간인의 경우에는 무려 50%에 해당한다.³⁾ 만주 기억이 재외 일본인, 특히 민간인의 식민지 및 패전의 기억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게 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소련과의 국경 지대에 거주하던 27만 명의 개척단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재만(在滿) 일본인 민간인들이 겪었던 전후의 도피와 억류 체험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희생자’로서 식민지 ‘귀환자’⁴⁾의 기억을 정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⁵⁾

만주 이민자들의 전후 귀환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해 귀환 ‘손상률’(損傷率)이 높았고 귀환 기간도 월등히 길었다. 만주 귀환자들의 귀환 도중 사망 비율은 11.4%로서 기타 지역 평균인 5%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개척단 농민의 경우

2) <http://www.dalian100year.com/>

3) 山本有造, 『満洲の終焉—抑留・引揚げ・残留』, 山本有造 編, 『満洲 記憶と歴史』,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4쪽. 패전에 이르는 근대 일본의 인구이동 전반에 관해서는 임성모,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 103, 2008 참조.

는 만주 귀환 사망자 총수의 45%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 귀환 기간의 측면을 보더라도, 유럽·미주·호주 등지에서의 귀환이 1946년 말에 종료된 데에 비해서 만주의 경우는 1946년부터 무려 3년 3개월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다른 지역들보다 현저하게 지체되었다.⁶⁾

재만 일본인에 대한 계획적인 집단귀환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네 차례 진행되었다. 782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101만 명을 수송한 최대 규모의 제1차 귀환(1946. 5~1946. 10)부터 제4차 귀환(1948. 6~1948. 8)까지 약 105만 명이 일본으로 귀환했다. 제3·4차 집단귀환의 경우에는 비행기까지 동원되기도 했다.⁷⁾

귀환의 지체나 피해자의 발생은, 소련군이 1945년 8월 9일에 진주하여 1946년 봄 철수할 때까지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후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각각 남만주와 북만주를 거점으로 치열한 국공내전을 전개하는 등, 패전 이래 이 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격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은 지위의 역전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제국의 붕괴는 식민자로서 만주에 건너갔던 일본인 이민들이 종래의 특권적

4) 여기서 '귀환자'는 일본어의 '히키아게샤'(引揚者)를 말한다. '히키아게'란 식민 등의 동기로 해외('외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므로 당사자들에게는 '귀환'(혹은 '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히키아게=귀환'으로 등식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히키아게'가 어떤 현상/용어에 대비되어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함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귀환자들을 고향으로 보내는 주체인 '외지' 당국의 입장에서 '히키아게'는 '송환'(送還)이 된다. 또 군인·군속의 귀환을 뜻하는 '후쿠인'(復員)과 대비하여 쓰일 때, '히키아게'는 민간인의 귀환을 가리키므로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귀환'과는 뉘앙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와트 등 연구자들도 '히키아게샤'(repatriates)를 (특히 국가권력)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중요한 차이들이 발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Lori Watt, *When Empire Comes Home: Repatriation and Reintegration in Postwar Jap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9, pp. 13~14).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되, 편의상 '히키아게'를 '귀환'으로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5) Lori Watt, *ibid.*, p. 15.

6)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東京: 時事通信社, 1991, 252~253쪽.

7) 満蒙同胞援護会 編, 『満蒙終戦史』, 東京: 河出書房新社, 1962, 590쪽. 일본인 귀환의 유형은 국비에 의한 집단귀환과 개별귀환으로 나뉜다. 재만 일본인의 집단귀환은 일본인 귀환의 전체적 국면에서 볼 때, 태평양 지역에서 귀환이 시작되어 소련의 일본인 포로 송환이 종료될 때까지인 제1기 집단귀환(1945. 9~1950. 4) 시기에 해당한다. 제2기 집단귀환(1953. 3~1958. 7)은 후술할 '나가사키(長崎) 국기 사건'에 의해서 중단되었다.

인 지위를 상실하고 소련군 진주에 따른 도피나 수용소 생활 등을 통해 (현지에서도 ‘고향’에서도) 소수자적 위치에 놓이게 만든 결정적 분기점이었던 것이다. 최근의 ‘전후사’ 연구는 종래의 연구와 달리 만주 등지로부터의 귀환자들이 일본에서 겪었던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다.⁸⁾

역사학자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는 만주 귀환 체험자의 수기를 분석하면서 만주 경험이 표출되는 시간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체험, 기술(記述), 현재라는 세 개의 시간축을 구분하는 가운데, 특히 ‘기술의 시간’이 중요하게 자리 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식민자의 체험 수기는 패전을 계기로 발생했던 소수자적 체험을 사후적으로 복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사건 체험과 사후 복원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가로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복원되는 ‘기술의 시간’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리타의 주장이다. “귀환의 기억 방식 자체가 각 주체들이 전후(戰後)와 대면하는 방식의 표백(表白)”이라는 것이다.¹⁰⁾

결국 식민지 경험이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수용되고 (재)해석되면서 표출되는 방식에 주목할 때, 비로소 체험의 시간으로부터 현재의 시간에 이르는 통시적인 과정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나리타의 이러한 지적은 만주 농업이민을 분석해 온 역사사회학자 아라라기 신조(蘭信三)의 주장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라라기는 만주 ‘개척단’ 체험자들에 대한 다양한 구술사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잔류 일본인’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만주 기억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 ‘서사의 자장(磁場)’(social context of narrative)이라는 공시적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

8) 예컨대 존 다우어, 최은석 옮김, 『패배를 꺼안고』, 서울 : 민음사, 2009, 49~60쪽 참조.

9) 成田龍一, 『「引揚げ」に関する序章』, 『思想』 955号, 2003, 152쪽.

10) 成田龍一, 위의 글, 169~170쪽. 나리타는 근대 일본의 동향회(同郷会)를 중심으로 한 ‘고향’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전후 일본의 귀환 서사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리타 류이치, 『고향』이라는 이야기·再說—20세기 후반의 ‘고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0호, 2006 참조.

아라라기에 따르면, 일본인의 만주 ‘원체험’(原體驗)——만주 이주와 생활 체험, 소련군 진주 시기의 도피 체험, 패전 이후의 난민 체험과 귀환·잔류 체험이라는 최초의 체험——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공동/공동 체험’을 갖는 만주 체험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원체험이 언급되어 의미를 획득하면서 일종의 ‘모델 서사’(model story)가 상상되는 가운데, 개개인의 기억이 그 서사 속에 해석되고 재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델 서사’를 공유하는 이 ‘기억 공동체’의 기억이 곧바로 사회의 공적 기억(public memory)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공적 기억과 대립하고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주 기억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후술 하듯이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은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사회적인 ‘주류 서사’(master narrative)와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자기변신을 하게 된다.

아라라기는 이러한 구도를 만주 체험자들의 ‘서사의 장’(a place to publicly talk about their experiences)과 이를 규정하는 사회적 맥락인 ‘서사의 자장’ 사이의 관계로 파악한다.¹¹⁾ 요컨대, 만주 체험자들의 기억은 개개인의 기억이 ‘기억 공동체’의 그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만, 그 서사들은 기본적으로 발화(發話)를 제한하는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나리타와 아라라기의 분석틀을 수용하여,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을 규정한 ‘서사의 자장’을 점령과 냉전이라는 ‘기억의 배후’로서 정리하는 한편, 만주 체험자 개개인의 원체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재구축하는 다양한 ‘서사의 장’들을 ‘기억의 회로’로 조명함으로써 만주 기억의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전체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1) 蘭信三, 「中国“残留”日本人の記憶の語り—語りの變化と「語りの磁場」をめぐる—」, 山本有造 編, 『滿洲記憶と歴史』,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212~213쪽, 218쪽. 나리타 또한 세 개의 시간축뿐만 아니라 ‘개인-가족-사회-국가’라는 축을 지적하고 있다. 成田龍一, 앞의 글, 170쪽.

2. 만주 기억의 억제와 재생

전후 일본 사회로 대량 유입된 귀환자들은 이미 귀환 당시부터 전쟁 ‘피해자’로 선전되고는 했다. 예컨대 1946년의 ‘일본 뉴스’ 같은 당시의 홍보영화에서 귀환자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자’로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¹²⁾ 그러나 좀더 일반적으로 볼 때, 이들은 ‘제국주의의 주구(走狗)’라는 정치적 비판을 받거나, 민중 차원에서 “그쪽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일상적 질시를 받기 일쑤였다. 그것은 귀환자를 노린 강도 사건이나 귀환자 집단에 대한 ‘냉랭한 시선’으로서 표출될 때가 많았다.¹³⁾

그런데 식민지 귀환자들에 대한 전후 일본 사회의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패전 당시 재외 국민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민’(棄民) 정책적 지향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993년 러시아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관동군 문서 가운데 대본영(大本營)의 만주 지역 민간인 대책과 관련된 문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패전 당시 ‘내지(内地)의 식량 사정과 사상경제 사정’을 이유로 해서 만주 및 조선 지역의 민간인을 현지에 ‘토착화’시킨다는 방침을 구상하고 있다. 즉, 군인과 관리 가족 위주의 30만 명만을 일본 귀환 대상자로 명시하여, 소련·만주국 국경 지대의 개척민을 포함한 일본인 민간인을 만주 지역에 잔류시키고 장래 일본 국적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까지 상정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이미 일본정부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직후인 1945년 8월 14일, 중국 각지의 영사관에 거류민을 가능한 한 정착시키게 하라는 방침을 외무성 전보로 타전했다. 이 기본 방침은 구체적으로 일본 거류민을 중국 국적으로 귀화

12) 朝日新聞社・NHKソフトウェア 企画, 『現代日本の歩み(日本100年 社会2) 引き揚げ』, 東京: NHKソフトウェア, 1995.

13) 台湾協會 編, 『台湾引揚史—昭和二十年終戦記録』, 東京: 台湾協會, 1982, 41쪽.

14) 大本營參謀 朝枝繁春 大佐, 『関東軍方面停戦状況ニ関スル實施報告』(1945. 8. 26). 白石惠美, 『中国残留孤兒'歸国者の人権擁護』, 東京: 明石書店, 2008, 62~63쪽에서 재인용.

시키는 한편 중국에 대한 배상의 일환으로서 일본 기업을 접수시킴으로써 전후 ‘중일 제휴의 초석’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이어졌다.¹⁵⁾

귀환·원호사업에 관한 최초의 공식 기록에도 일본정부가 재만 일본인에 대한 만주 ‘토착화’ 혹은 ‘잔류’의 입장을 취했음이 명시되어 있다. 즉, 일본정부는 “해외 부대 및 해외 방인(邦人)에 관해서는 극력(極力) 해외에 잔류시킨다”는 방침을 취했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대부분 해외에 잔류하도록 훈령(訓令)을 내렸다 고 기술했던 것이다.¹⁶⁾

그러나 연합국 점령 당국(GHQ)의 기본 방침은 재외 일본인의 강행적 귀환이었다. GHQ는 대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비군사화 등 군국주의의 기반 해체 조치와 함께, 대외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 기반을 철저히 제거하는 조치로서 재류 일본인 사회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한다.¹⁷⁾

물론 일본정부의 초기 방침을 단순히 ‘기민’이라고만 보는 것은 사후적 단견일 수도 있다. 저명한 식민정책학자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는 재외 일본인에 대한 미군정의 일제 귀환 조치가 “현지에 생활의 거점을 갖고 주민과 평화적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기반까지 완전히 파괴한 ‘퇴행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¹⁸⁾ 이른바 현지 ‘토착화’ 방침이 해방 후의 구식민지 사회에서 종래의 지배-종속 관계와 다른 새로운 민족 관계를 만들어 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면 일정하게 수긍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려는 점은 일본정부가 ‘중일 제휴의 초석’을 운운하면

15) 浅野豊美, 『帝国日本の植民地法制』,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08, 578~579쪽.

16) 引揚援護廳, 『引揚援護の記録』, 東京: 引揚援護廳, 1950, 1, 77쪽. 그러나 이 기록은 이후에 간행되는 공식적 귀환사 기록물들, 예컨대 厚生省援護局의 『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東京: ぎょうせい, 1978)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고 만다. 南誠, 『想像される‘中国残留日本人’—‘国民をめぐる包摂と排除』, 蘭信三 編, 『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 東京: 勉誠出版, 2009, 42~43쪽 참조.

17) 浅野豊美, 『折りたたまれた帝国—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の価値』, 細谷千博·入江昭·大芝亮 編, 『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4, 314쪽.

18) 矢内原忠雄, 『民族の価値と平和の価値』, 『矢内原忠雄全集』第20巻, 東京: 岩波書店, 1964, 13~14쪽.

서도 실제로는 반공주의나 식량난과 같은 본토의 사상적·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삼아 해외 이주 일본인들의 본토 유입을 막으려 했었다는 점이다. 결국 미군정의 강력한 귀환 정책 때문에 이러한 구상들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미일 합작의¹⁹⁾ 일제 귀환이 이루어졌으나, 귀환자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싸늘한 시선은 정부의 기민 정책적 지향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주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만주 체험자들과 일본 사회 전반의 기억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전체 인구의 9%에 해당했던 해외 거주 일본인의 전쟁 기억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의 도쿄 공습 등 연합군의 대규모 도시 공습과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 원폭 피해로 상징되는 본토 거주 일본인의 전쟁 기억에 의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만주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전후의 ‘평화주의’나 ‘평화 교육’과 결합되는 가운데, 만주 체험자들에게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병’, ‘만주 침략의 실동(實動)부대’, ‘빈농 2,3남 등 내지(内地)에서 실패한 망나니들’이라는 식의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나갔다.²⁰⁾

일본 사회의 주류 서사에 대한 만주 체험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만주 체험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만몽동포원호회’(滿蒙同胞援護會)의 회장 히라지마 도시오(平島敏夫, 전 만철 부총재)는 “명리(名利)를 버린 채 오족(五族)의 동지와 손잡고 외곶으로 만몽의 자원개발, 혹은 새 이상(理想)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라 하고, 일본인의 변영은 원주민을 착취한 것이라고들 말하는 것은 우리들로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격분하기도 했다.²¹⁾

한편 그런 가운데서도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이후 미귀환자들에 대한 후속

19) 와트는 전후 귀환을 미일의 ‘공동생산품’(Co-production)으로 규정한다. Lori Watt, *Ibid.*, pp. 56~97.

20) 蘭信三, 『滿州移民』의歴史社会学, 京都: 行路社, 1994, 11쪽.

21) 平島敏夫, 『樂土から奈落へ—滿洲国の終焉と百万同胞引揚げ実録』, 東京: 講談社, 1972, 304쪽.

귀환 조치가 중일 간에 추진되고 있었다. 국공내전이 종식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중국 정부는 중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미귀환 일본인들의 일본 귀환을 원조하기 시작했다. 1953년 3월 중국홍십자회가 일본의 민간 3단체(일본적십자사, 일중우호협회, 일본평화연락회)와 베이징(北京)협정을 맺고 집단귀환을 재개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58년 7월까지 약 32,000명의 일본인이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²²⁾

그러나 이 시기의 만주 기억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미일 안보조약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틀이었다. 1956년 『경제백서』에서 ‘이제 전후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구호를 내걸며 고도성장을 발진시킨 일본은 1957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이 등장하면서 안보투쟁으로 귀결되는 친미 노선을 강화해 나갔다. 그것은 곧 사회주의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본격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타이완과의 관계를 중시한 기시 정권의 외교 방침 아래서 중일관계의 악화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1958년의 중일관계 단절로 나타났다. 이 해 봄에 일어난 소위 ‘나가사키(長崎) 국기 사건’으로 인해 대중국 무역과 귀환이 전면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나가사키 시의 한 백화점에서 일중우호협회 나가사키 지부가 주최한 중국 우표 전시회의 전시장에 게양되어 있던 중국 국기(오성홍기)를 우익단체가 끌어내려 훼손한 데서 비롯되었다. 경찰은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기물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방 조치를 취했다. 국기를 기물로 취급한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격분함으로써 무역과 잔류자 귀환 등의 기존 관계를 전면 중단시켰던 것이다.²³⁾

일본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미귀환자 특별조치법’(1959)을 제정함으로써

22) 베이징협정을 중심으로 한 중일 협상에 대해서는 오일환, 「1950년대 在中日本人, 在日華僑 및 유골송환에 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8호, 2005; 「1950년대 在中日本人 引揚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 협상」,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2007 참조.

23) 白石惠美, 「中国残留孤兒 歸国者の人権擁護」, 70~71쪽.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전쟁의 기억을 봉쇄하고자 했다. 미귀환자들에 대한 ‘전시 사망 선고’를 가능케 하는 한편 ‘자기의사 잔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입법 조치는 중국 잔류 일본인의 존재를 비가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약 13,600명의 미귀환자가 사망 선고를 받고 호적에서 말소되었으며, 일부는 ‘자기 의사’로 잔류했다고 하여 ‘유수(留守)가족 원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²⁴⁾

이것은 결국 미귀환자를 ‘비국민’(非國民)으로 만들어 국민 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이었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소위 ‘복송’도 착착 진행되었다.²⁵⁾ 이 과정에서 만주 기억은 ‘제국의 망령’으로서 공공적 기억의 장에서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전쟁 기억은 히로시마의 피해 서사로 일극 집중되고 여기서 아시아는 배제되었다. 이로써 일본 사회는 전후의 ‘평화’를 일국적인 틀 속의 자기만족적 의례로 만들어 나갔다.²⁶⁾

1960년대 전반까지의 전후 일본 사회에 나타난 만주 기억의 양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체험적 기억’에 대한 ‘공공적 기억’의 억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적 기억 속에서 만주 ‘진출’은 제국주의 침략, 만주 이민은 식민지 침략의 침병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만주국 시기의 공식 구호였던 ‘오족협화’(五族協和), ‘왕도낙토’(王道樂土), ‘신천지’(新天地) 등은 공교육의 장 등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침략’, ‘괴뢰’, ‘기만’, ‘야망’ 등이 만주 기억의 수식어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반면에 만주 농업이민 등 만주 경험자들의 체험적 기억은 피해와 향수의 기억으로서 고착되어 나갔다. 피해의 기억은 소련군 진주 이후의 도피, 억류, 귀환 등의 ‘고난’ 서사로서, 향수의 기억은 ‘제2의 고향’(이민 2세에게는 고향)에 대한

24) 蘭信三 編, 『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 53~54쪽.

25) ‘복송’(한국)·‘귀국’(일본)이라는 이름의 재일조선인 추방에 대해서는 테사 모리스-스즈키 지음,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서더스』, 서울: 책과함께, 2008 참조.

26) 권혁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 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 창간호, 2009 참조.

‘좋았던 시절’의 ‘망향’(望郷) 서사로서 체험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억제된 기억의 창고 역할을 한 것은 각종 만주 관련 모임들이었다. 1940년대 후반 이래 만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기 시작하여, 197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창회 71개, 전우회 81개, 지역단체 33개, 직능단체 78개 등을 포함해 모두 250개가 넘는 ‘만몽(滿蒙) 관계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²⁷⁾ 대부분 만주 거주 시절의 도시 지명이나 회사명을 붙인(奉天會, 滿映會, 蘭星會 등) 이들 단체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회지를 발간하면서 사망 동료들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전후 일본 사회에서 소외된 만주 기억을 저장하거나, 지배적인 만주 기억과 상이한 집합적 기억을 양성하는 ‘일탈의 장’을 형성하였다.²⁸⁾ 만주 기억을 매개로 한 전후 일본의 ‘기억 공동체’였던 것이다. 이들은 후술할 만주 관광의 초기에 그 주요한 담당자들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억제되었던 만주 기억이 일본 사회에서 재생하게 되는 전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68년의 ‘메이지유신 백년제’를 전후한 일본 내셔널리즘의 강화, 그리고 1972년 중일 간의 국교 회복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1978)이었다.

특히 중국과의 국교 회복은 중국 잔류 일본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가시화시키면서 종래 만주 체험자에 국한되어 있던 ‘기억 공동체’를 국민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만주 귀환자를 중심으로 중국 잔류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잔류 일본인의 육친 탐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귀국촉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1980년대에 식민지 2세인 만주 출신자들의 ‘고향’ 관광을 대중화시키면서 향수로서의 만주 기억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공헌했다. 만주 관광은 귀환자들뿐만 아니라

27) 浜野健三郎, 『ああ満洲』, 東京: 秋元書房, 1970.

28) 坂部晶子, 『満洲経験の社会学 ― 植民地の記憶のかたち』, 京都: 世界思想社, 2008, 71쪽.

일반인의 참가도 두드러지면서 종래 억압되어 왔던 만주 기억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1980년대 이후에 만주 기억은 급격히 변모해 나가게 된다. 그것은 공공적 기억에 대한 체험적 기억의 도전, 그리고 만주에 대한 향수의 전면화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변모에는 각종 미디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하에서는 이 미디어들을 만주 기억의 주요 회로로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만주 기억의 주요 회로들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사회의 만주 기억에 나타난 지각변동에 중요한 회로 역할을 한 것은 활자·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와 중일 국교 재개 이후 확대된 단체관광 형태의 현지 방문이었다. 여기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하면서 만주 체험자들의 각종 수기와 소설, 사진집과 TV 다큐멘터리, 그리고 단체관광 등의 순서로 이들 기억 회로의 실태와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만주 기억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활자매체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선을 보인 것은 귀환 체험자들의 수기였다. 이들 수기는 1950년을 전후하여 출간되기 시작해서 1960년대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약 붐을 이루게 된다. 나리타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의 수기와 이전의 수기가 대략 7 대 1의 비율을 보일 정도로, 80년대 이후의 귀환 수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⁹⁾ 1960~70년대에 귀환 체험 당사자들이 전후 일본에서의 생활에 분주해졌던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되기도 하지만,³⁰⁾ 여기에는 앞

29) 成田龍一, 『「引揚げ」に関する序章』, 151쪽.

30) 같은 책, 151쪽.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중일관계의 변화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교 회복 이후 활성화된 잔류 일본인의 귀국촉진운동 등이 만주 체험 수기의 출간 붐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수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49년에 출간된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의 베스트셀러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이다.³¹⁾ 후지와라는新京(新京; 지금의 창춘長春)의 중앙관상대에 근무하게 된 남편을 따라 1943년에 만주 땅을 밟은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지만 만주에서 둘째 아들과 딸을 낳았다. 수기는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한 관상대 소개단(疏開團)의 도피 과정을 담담히 그려낸다. 한반도 북부의 선천(宣川) 농업학교에 수용된 이후의 생활을 묘사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뒤, 삼팔선을 넘어 부산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후지와라의 수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피난 과정에서 가장(家長)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저자의 고녀가 가족에 대한 신뢰와 회의,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실망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도 그 과정에서 대면했던 중국인이나 특히 조선인이라는 타자에 대한 시선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기가 소련군이 진주한 날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만주국 붕괴 이전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이 못 되는 단기간의 만주 체험이었다고는 해도, 이 시기에 대한 회상은 의식적으로 억제된 셈이다. 요컨대 수기의 주선율은 수용소 생활을 포함한 ‘고난의 도피’에 대한 기억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리타도 지적했듯이, 후지와라와 같은 관점이 이후의 수기들(특히 여성 필자의 것들)에서 대부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³²⁾

그런 의미에서 1922년 다롄에서 태어난 식민지 2세 시인인 기요오카 다카유

31) 藤原てい,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東京: 日比谷出版社, 1949(中公文庫, 1976). 이 책은 발간 직후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藤原데이 저, 鄭廣鉉 역, 『내가 넘은三八線』, 서울: 수도문화사, 1949).

32) 成田龍一, 『「引揚げ」に関する序章』, 164쪽.

키(清岡卓行)의 자전적 소설은 만주 지배기의 기억이 전후에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잘 보여 주는 경우이다. 1970년도 제62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 수상작인 『아카시아의 다렌』은 1948년 마이즈루(舞鶴)로 귀환한 저자의 만주 기억을 1960년대 후반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내용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은 뒤의 심리적 방황 속에서, 라디오에서 알제리 독립운동 보도를 듣고 주인공이 불현듯 떠올린 ‘고향’ 다렌에서의 청춘 시절을 추억하는 ‘향수’ 이야기이다.³³⁾

소설에는 중국인 콜리들이 일본인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나 중국인 빈민굴의 힘겨운 삶 등이 묘사되어 일본의 만주 지배가 내포하고 있던 모순과 갈등이 간접적으로 언급되고는 있다. 그러나 만주 이미지의 그러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일 뿐, 저자는 기본적으로 다렌을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고 아내와의 연애와 결혼을 상기시키는 ‘긍정적’ 공간으로서 묘사한다. 결국 다렌의 식민지 도시로서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식민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여성화시키면서 향수로서의 만주 기억을 부각시켰던 것이다.³⁴⁾

기요오카의 소설은 후지와라의 수기와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등장했기 때문에 체험 당시의 ‘고난’의 기억이 일정하게 상대화되면서 ‘향수’로서의 기억이 전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은 이들 매체에 의해 고난과 향수의 기억으로 정형화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이후의 수기 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억의 틀을 재생산해 냈던 것이다.

그런데 수기 등의 활자매체는 전후 일본 사회가 만주에 대한 기억을 어떤 방

33) 清岡卓行, 『アカシアの大連』, 『群像』 1969년 12月号(清岡卓行, 『アカシアの大連』, 東京: 講談社, 1970에 수록; 井上靖 外編, 『昭和文学全集 30』, 東京: 小学館, 1988에도 재수록). 기요오카는 토목기사인 부친이 다렌 축항(築港)사무소장으로 재직할 때 다렌에서 태어나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도쿄제국대학 불문과에 입학했다가 패전을 맞은 경력의 소유자다. 인자이 후유에(安西冬衛) 등 1920년대 다렌을 무대로 대두했던 모더니즘 시의 계보에 속한다. 그는 중일 국교 회복 후인 1982년에 다렌을 방문한 뒤 『大連小景集』(東京: 講談社, 1983)을 출간했으며, 이후의 작품들(『大連港で』 등)까지 포함한 그의 다렌 관련 소설은 『清岡卓行大連小説全集』(2冊)(東京: 日本文藝社, 1992)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다.

34) 川村湊, 『異郷の昭和文学—満州と近代日本』, 東京: 岩波書店, 1990, 81~91쪽.

식으로든 재구성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만주 기억의 활자화는 패전에 의해 흩어지고 소실될지도 모를 자료를 보존하고 재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수기 발간의 일시적 소강기였던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기초자료적 성격의 회고록들이 집중적으로 편집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회고록의 특징은 만주국 국가기구의 중추를 담당했던 식민지 지배 당사자들의 회고록들이라는 점이다. '만몽 동포 원호회'가 펴낸 『만몽 종전사』(滿蒙終戰史, 1962)³⁵⁾도 기본적으로 이 계보에 속하지만, 1965년에 발간된 『아아, 만주』는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책의 부제가 '국가 건설 산업개발자의 수기'라고 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 의한 만주 '산업개발', 즉 '근대화'의 성과를 강조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다. 무려 900쪽이 넘는 이 책의 서문에는 만주국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편집하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전후에 만주 건설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잊혀지고 마는 것"을 우려한다고 하여 역사자료화가 중요한 발간 목적 중 하나임을 명시했다.³⁶⁾

300명 가까운 필진 중 한 명인 전 만주국 총무청 차장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국가 건설' 사업이 "민족협화와 왕도낙토의 이상에 빛나는, 과학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과감한 실천이 이루어진, 정녕 독보적인 근대적 국가 건설"이었다는 것, "당시 만주국은 동아의 희망"이었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만주 개발의 의의와 성과를 몰각(沒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³⁷⁾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국 지배 당사자들은 일본의 만주 지배가 근대적 자원개발과 산업개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일본의

35) 滿蒙同胞援護會 編, 『滿蒙終戰史』, 東京: 河出書房新社, 1962.

36) 滿洲回顧集刊行會 編, 『あゝ滿洲 一国つくり産業開發者の手記』, 東京: 滿洲回顧集刊行會, 1965.

37) 滿洲回顧集刊行會 編, 위의 책, 「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내셔널리즘에 일조하고자 했다.³⁸⁾

그밖에도 『만주 개발 40년사』나 『만주국사』 등 좀더 체계적으로 편집된 자료 집들, 그리고 전 만주국 총무청 장관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 등의 개인 회상기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잇달아서 간행되었다.³⁹⁾ 만주에서 이들의 위치는 일반 귀환 체험자들과 큰 괴리가 있었지만, 이들이 재구성해 낸 국가주의적 만주 기억은 1980년대 이후 ‘식민지 근대화’ 편향의 서사로서 보편성을 획득해 나갔다. 아울러 이들 자료가 오늘날 만주 연구의 기본자료가 되어 있음을⁴⁰⁾ 감안할 때, 기억의 자료화를 표방했던 이들의 의도는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활자매체와 함께 만주 기억을 확산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영상매체였다. 먼저 만주 지배기의 현지 풍경을 담아 낸 사진들이 사진집 형태로 발간됨으로써 만주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1958년에 간행된 후치카미 하쿠요(淵上白陽)의 사진집 『만주의 회상』은⁴¹⁾ 그 시발점에 해당한다. 후치카미는 1920년대까지의 ‘예술 사진’과 1930년대 이후의 모더니즘 사진(이른바 ‘신흥 사진’)을 잇는 ‘구성파’(構成派) 사진가였다. 그는 일본 광화(光畵)예술협회를 창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만철 초병으로 만주를 여행한 이듬해인 1928년부터 41년까지 만철 총재실 정보부 촉탁(囑託)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만주국이 수립된 1932년에 ‘만주 사진작가 협회’를 설립하고 홍보기술과장으로서 만주국 선전활동에 종사하기도 했다.⁴²⁾ 『만주의 회상』은 그가 만주 전역을 돌며 찍었던 만주의 풍광

38) 기시 노부스케의 만주(국) 인식과 동남아시아 경제 진출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임성모, 「전후 일본 보수정치의 ‘만주’ 표상—기시 노부스케의 내정과 외교」, 『일본학보』 78호, 2009 참조.

39) 星野直樹, 『見果てぬ夢—満州国外史』,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1963; 満史会 編, 『満州開発四十年史』(3冊), 東京: 謙光社, 1964~1965; 大同学院史編纂委員会 編, 『大いなる哉 満州』, 東京: 大同学院同窓会, 1966; 片倉衷·古海忠之, 『挫折した理想国—満洲国興亡の真相』, 東京: 現代ブックス社, 1967; 満洲国史編纂刊行会 編, 『満洲国史 総論/各論』, 東京: 満蒙同胞援護会, 1970/71; 国際善隣協会 編, 『満洲建国の夢と現実』, 東京: 現代ブックス社, 1975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료집들이다.

40) 임성모, 「만주국 정치사 연구의 기본·심화자료 및 국내자료」, 한석정 외,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79~83쪽(해설), 178~183쪽(문헌목록) 참조.

41) 淵上白陽, 『満洲の回想』, 東京: 惠雅堂, 1958.

과 인물 사진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어서, 독자들이 하여금 만주 시절로의 시간여행을 맛보게 했다.

‘만주 사진작가 협회’에서 활동했던 사진가 와타나베 마나부(渡部まなぶ)의 사진에 재야 문학자 기타코지 겐(北小路健)이 해설을 붙인 사진 에세이 『망향 만주』(望郷満洲, 1978)는 만주로의 시간여행을 극대화시킨 경우였다.⁴³⁾ 만주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던 기타코지는 이 사진집의 후기에서 “일본의 국책을 믿고 국가를 위해 국방에 몸을 내던진 수많은 군인과, 미래의 희망을 걸고 이주한 사람들에게 만주는 신천지였다. …… 이들이 향수를 품고 만주를 추억하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으랴”라고 함으로써 만주에 대한 향수를 정당화한다.

『망향 만주』식의 만주 사진집은 이후 속속 등장함으로써⁴⁴⁾ 만주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이미지란 ‘붉은 석양과 지평선’, ‘송화강(松花江) 물결과 대흥안령(大興安嶺) 밀림’, ‘광야를 질주하는 특급 아시아호’, ‘러시아 정서로 가득한 하얼빈(哈爾濱) 거리’ 등으로 상징되는 ‘고정 이미지’(定番イメージ)였다.⁴⁵⁾

영상매체로서의 사진은 이처럼 만주 기억을 고정된 이미지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공공적 기억에 대하여 도전하는 데 대폭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만주 개발 40년사』를 간행하기도 했던 만주 체험자 단체 ‘만사회’(満史会)가 1971년에 발간한 두 권의 사진집 『만주 모정』(満洲慕情)이다.⁴⁶⁾ 이 사진집은 위의 사진집들처럼 전전(戰前)에 만주 현지를 찍은 사진들을 모았지만 그것

42) 飯澤耕太郎, 「寫眞のユートピア—洲上白陽と満洲寫眞作家協會」, 藤原書店編集部 編, 『満洲とは何だったのか』, 東京: 藤原書店, 2004, 211~222쪽.

43) 北小路健, 『望郷満洲』, 東京: 國書刊行会, 1978.

44) 기타코지가 참여한 것만 보더라도 『さらば大連・旅順』(1979), 『ああ北満』(1980) 등이 있고, 1981년 이후로는 센양, 다롄, 무순(撫順) 등 주요 도시를 무대로 한 ‘만주 여행’(満洲の旅) 사진집들이 시리즈로 간행되었다(이상 모두 國書刊行회에서 출판).

45) 西原和海, 「真集に見る『満洲』イメージ」, 藤原書店編集部 編, 위의 책, 123~124쪽.

46) 満史会 編, 『満洲慕情 — 全満洲写真集』(2冊), 東京: 謙光社, 1971.

을 만철 연선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마치 만철의 기차를 타고 만주를 여행하는 느낌을 주도록 편집한 것이 특징적인데,⁴⁷⁾ 서문에서 사진집 발간의 의미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즉 “전후의 좌익 사상에 의해 왜곡된 만주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고 해명하기 위한 광보(廣報) 활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주 기억의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영상매체는 역시 TV였다. 특히 일본방송협회(NHK)의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공신력을 배경으로 중일 국교 회복 이후로도 상당 기간 망각의 늪에 빠져 있던 만주 기억을 1980년대 이후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재회』(再会)는 이른바 ‘중국 잔류 고아’를 조사·위문하기 위한 중국방문단(‘일중우호 손을 맞잡는 모임’)의 여정을 추적한 작품이다.⁴⁸⁾ 베이징-지린(吉林)-셴양(瀋陽)-창춘-하얼빈 등 도시부를 중심으로 약 300명의 잔류 고아와 면회한 기록을 편집한 이 다큐는 일본 거주 육친이 판명된 두 명의 고아를 통해 멜로드라마 효과를 거두었다.

1990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잊혀진 여성들』은 국교 정상화 이후로도 17년 동안이나 중국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 여성들, 소위 ‘중국 잔류 부인’들을 현지에서 직접 면회하여 개개인의 체험담을 소개한 작품이다.⁴⁹⁾ 나가노현(長野縣) 출신자들인 이들 여성은 개척단으로 만주에 송출되었다가 패전의 혼란 속에서 가족과 사별하거나 이산한 뒤에 ‘자기 의사’로 중국 잔류를 택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들이었다. 다큐는 일본으로 귀환했던 한 여성이 중국을 방문해 어린 시절의 옛 친구들과 재회하면서 옛 체험담과 지금의 심정, 귀국 문제의 고충 등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다큐는 1980년대 초 이래 고조된 ‘잔류 고아’에 대한

47)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가 편집한 「만주철도 환상여행」은 사진과 엽서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기획을 비판적으로 패러디한 것이다. 川村湊, 『満洲鉄道まぼろし旅行』, 東京: ネスコ, 1998.

48) NHK取材班, 「再会 — 中国残留孤兒の歲月」, 日本放送協会, 1981. 이 다큐멘터리는 1999년과 2002년에 재방송되기도 했다.

49) NHK取材班, 「忘れられた女たち — 中国残留婦人の昭和」, 日本放送協会, 1990.

사회적 관심의 그늘 아래 묻혀 있던 ‘중국 잔류 부인’ 문제를 최초로 다룸으로써 거품경제로 흥청거리던 1980년대 말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⁵⁰⁾

그런데 『잊혀진 여성들』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드러나지만, 이들 다큐멘터리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미나미 마코토(南誠)의 지적처럼, ‘귀환자’들이 ‘잔류자’들을 대변·표상하는 방식의 서사구조를 갖춤으로써 잔류자들의 기억을 귀환자들의 체험적 기억으로 회수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⁵¹⁾ 요컨대 이 영상물들은 만주 귀환자들에게 ‘고난의 귀환’을 겪은 ‘피해자·희생자’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거두면서 ‘잔류 일본인’의 초국가적(transnational) 경험을 국가적(national)인 것으로 가둬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활자·영상매체가 만주 기억을 정형화하는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된 만주 관광은 전후 일본 사회가 만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서 기능하였다.

물론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에도 제한된 ‘정치적’ 관광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중일 우호의 가교’로서 ‘교류참관단’ 형태의 관광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일본 측의 ‘일중 평화관광’과 중국 측의 ‘중국 국제 여행사’가 주관한 이들 관광여행에는 만주 체험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희망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한 해 평균 1만 명 선을 조금 넘는 소규모의 관광에 그쳤다. 또한 ‘일중 평화관광’은 여행 지침에서 ‘지나(支那)나 ‘만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중국 국제 여행사’도 전쟁이나 침략 관련 유적에 대한 견학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상호 배려’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만주에 대한 향수와 역사인식 양자가 봉인되는 형태의 기억 여행에 머무르고 있었다.⁵²⁾

50) 이러한 다큐멘터리물 전반에 대해서는 南誠, 「中国残留日本人の語られ方 — 記憶・表象するテレビドキュメンタリ」, 山本有造 編, 『満洲記憶と歴史』,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252~290쪽 참조.

51) 南誠, 같은 논문, 285쪽.

52) 高媛, 「記憶産業としてのツーリズム」, 『現代思想』 29-4호, 2001, 222쪽.

개혁개방은 이러한 만주 관광의 양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종래의 정치성이 현저하게 희석된 ‘산업적’·‘경제적’ 관광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그것은 1980년의 ‘중국 귀환자 연학회’(중귀련) 제6차 방중단(訪中團)의 사례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중귀련’은 전후 중국에 억류되었던 전범(戰犯) 관계자 단체인데, 그 이전의 만주 방문 시에는 푸순(撫順) 전범 관리소 유적과 평딩산(平頂山) 중국인 학살 전시관 견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6차 방문에서는 이 일정이 취소되는 대신 푸순시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대일(對日) 무역·기술 협력과 관련된 견학으로 일정이 채워졌다고 한다.⁵³⁾

여기에는 ‘성공적’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중국 관광업의 자기 변신이 개재되어 있다. 1984년부터 중앙에 제한되어 있던 국제 관광업무의 연락 권한이 지방 여행사로 확대됨으로써, 동북(東北) 지방 여행사를 통한 일본인 만주 체험자와 일반인의 패키지 관광이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일본교통공사(日本交通公社, JTB) 등 일본 관광업계도 이에 발빠르게 부응해 만주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를 전면화시키는 상품화에 앞장섰다. 패키지 명칭 자체에 ‘망향’이나 ‘추억’ 등의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구 야마토(大和) 호텔 등 구 만주국 시기의 유적이 중시되면서 ‘제국의 기억’을 소비자원화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가오 유엔(高媛)이 『중국 관광 통계연감』을⁵⁴⁾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동북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일본인이 접하는 비율은 다롄이 46(최저)~72(최고)%, 창춘이 26~48%, 하얼빈이 18~42%, 쟈양이 16~39%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⁵⁵⁾ 동북 3성 가운데 지린성(吉林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보다 랴오닝성(遼寧省)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롄 관광의 급격한 신장에 의한 것이었다. 가오의 분석에

53) 中国歸還者連絡会 編, 『帰ってきた戦犯たちの後半生』, 大阪: 新風書房, 1996, 283~284쪽.

54) 中国国家旅游局 編, 『中国旅遊統計年鑑』, 中国旅遊出版社, 1990~2000年版.

55) 高媛, 『記憶産業としてのツーリズム』, 229쪽.

따르면 일본인의 다렌 관광은 1991년부터 15년 동안에 무려 10배로 급팽창하였다.⁵⁶⁾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다렌 아카시아 축제’ 등 중일 합작의 이벤트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활성화된 일본인 만주 관광은 ‘식민지의 기억’보다 ‘제국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국가/민족화’(nationalization) 되어 가고 있다. 중국 측이 침략의 ‘역사’에 대한 강조를 예들려 완화하면서 경제 적 실리를 얻으려 하는 데 편승하여 일본 측의 또 다른 ‘기억’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주 관광은 전형적인 ‘동상이몽’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⁵⁷⁾

다렌의 아카시아 축제가 기요오카의 소설 『아카시아의 다렌』에서 연상된 것 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후지와라의 수기가 도에이(東映)의 영화로 제작 되었듯이,⁵⁸⁾ 상당수의 만주 관련 수기나 소설들은 드라마나 영화로 형태를 바꾸 어 재연되었다. 이처럼 수기, 소설, 사진, 다큐멘터리, 관광 등 기억을 구축하는 각 종 회로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을 형성시켜 왔다.

4. 전후 일본의 ‘기억 정치’와 만주 —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은 미국의 점령과 동아시아 냉전의 틀 속에서 1960년대 전반까지는 주류 서사에 의해 억제된 채 만 주 체험자들에 의해 복류(伏流)하다가 고도경제성장과 중일 국교 재개를 계기로

56) 高媛, 「ポストコロニアルな「再会」—戦後における日本人の「満洲」観光」, 杉原達外 編,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4 帝国の戦争経験』, 東京: 岩波書店, 2006, 361쪽.

57) 이러한 동상이몽의 구도는 중국 내 소수민족 관광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高山陽子, 「民族の幻影—中国民族観光の行方」, 仙台: 東北大学出版会, 2007 참조.

58) 소설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1949)는 같은 해에 고이시 에이이치(小石栄一) 감독에 의해 도에이에서 영화화되었으며, 1982년에는 TBS의 TV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1982.5.10~7.2).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만주 ‘원체험’자들의 각종 수기, 소설, 사진, TV 등 활자·영상매체들과 현지 관광이 기억을 유통시키고 배양하는 주요 회로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내용이 주류 서사의 ‘침략’과 ‘식민’의 이미지와 대립되는 ‘고난’과 ‘향수’의 이미지였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만주 체험자들(특히 민간인)의 수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만주 기억은 식민지 기억의 전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식민지 기억으로서의 만주 기억이 터한 ‘기억의 자장’을 다시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후 일본의 전쟁 기억은 패전과 점령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변형되었다. 즉,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기억(식민지 기억)이 미국에 의한 패배와 점령의 현실에 의해 압도당했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점령이 기억의 대상이 된 뒤로 식민지 기억에 의한 가해의식이 제자리를 잡는 대신, 원폭 신화를 정점으로 하는 수동적 ‘평화국가’의 구호 아래 피해의식이 전면화되었다. 미국이라는 변수의 압도적인 작용 아래서 가해의식이 망각되고 피해의식이 상기되는 ‘기억의 분단’이 일어났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분단은 ‘기억의 국민화’와 병행되어 고착화했다. 종래 ‘제국 신민(臣民)’이었던 조선인, 중국인, 타이완인, 그리고 류큐인까지도 국민/비국민의 강행적 분할에 의해 배제되는 경과를 밟았다. 나아가 사할린 등지에서의 ‘비국민’에 대한 ‘기민(棄民)’과 유사한 형태로 식민지 ‘귀환자’와 ‘잔류자’가 국민/외국인으로 분할되었다. ‘중국 잔류 고아/부인’이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구 식민지 출신자와 식민지 잔류 국민을 배제한 ‘기억의 국민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전후 일본의 식민지 기억은 이처럼 기억의 ‘분단과 국민화’라고 하는 ‘기억 정치’의 힘에 의해 규정당하는 가운데서 새롭게 구축되었다. 고도 경제성장이 본래도에 진입하면서 일본 내셔널리즘과 ‘평화주의’의 결합은 점차 강화되어 나갔다. 공습과 원폭 등 전쟁 피해의 기억이 이를 뒷받침했다. 본토에서의 전쟁 피해 기억에 의해 억압되기도 했던 식민지 귀환의 기억 또한 피해자 의식에 입각한 반전(反

戰)사상과 결합하여 일본인의 고난의 체험으로서 '일국평화주의'의 자장 속으로 흡수되었다. 식민지 지배의 가해의식은 괄호 속에 봉인되고 말았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만주 '귀환자'의 이미지가 '식민자'의 이미지와 확연히 분리되어 버린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였다. 소련군의 폭행과 비참한 수용소 생활, 생사를 오가는 도피행 등의 기억이, 본토에서의 공습과 원폭에 의한 피해 체험과 중첩되면서 전쟁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로 고착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각종 회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만주 기억의 전체적 흐름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를 분수령으로 해서 종래의 공공적 기억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시적으로만 볼 때, 만주 기억의 '건강성'은 악화 일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 관광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식민지 기억은 결코 일국적 차원에만 갇힐 수 없는, 본질적으로 '월경적'(越境的)인 성격의 기억이기도 하다. 기억의 공시성에 주목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주 기억의 배후였던 동아시아 냉전의 틀이 붕괴될 때 기억의 회로들도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와 자본가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 생산의 주체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은 급진적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즉, 미군정이 주도한 노동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산업보국회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기억은 전후 일본에서 진행된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인사노무관리의 합리화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 그 배후와 회로 | 임성모

투고일자 : 2009년 12월 14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9일

전후 일본 사회의 만주 기억은 식민지 기억의 전형에 해당한다. 만주 기억은 점령과 냉전의 틀 아래 1960년대 전반까지 ‘침략’과 ‘식민’의 주류 서사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러나 만주 체험자 그룹을 중심으로 배양되고 있던 이 기억은 고도경제성장과 중일 국교 재개를 계기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만주 ‘귀환자’들의 각종 수기, 소설, 사진, TV 다큐멘터리 등 활자·영상매체들,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활성화된 만주 관광 등이 기억을 유통·확산시키는 주요 회로로서 기능했다. 전후 일본의 ‘기억 정치’는 식민지 지배의 가해의식을 봉인하고 ‘고난’의 피해의식을 부각시키면서 ‘반전평화’와 내셔널리즘을 결합한 ‘일국평화주의’를 구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귀환’ 서사로 상징되는 만주 기억은 ‘제국’과 ‘근대화’의 ‘향수’를 부추기는 새로운 주류 서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월경적’인 식민지 기억은 동아시아 냉전의 항배에 의해 서 재규정될 것이다.

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 구레의 ‘해사 역사과학관’을 중심으로 | 정근식

투고일자 : 2009년 12월 4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히로시마 남부의 소도시 구레에서는 2005년 ‘해사 역사과학관’이라는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박물관은 별칭으로 ‘아마토뮤지엄’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태평양전쟁에서 활동했던 군함 아마토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기억을 되살려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지역정치의 산물이다. 이 박물관의 설립과정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풀뿌리 보수주의의 전개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태평양전쟁에서의 피폭, 전재(戰災)라는 역사적 경험을 내세우면서 평화를 고수하려는 흐름간의 경합과 갈등,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히로시마의 평화’를 재고하기 위해서 ‘바다로부터 히로시마만(灣)